

개혁·개방시대 중국 대학생의 의식 동향 및 사회 평가

오 부 윤*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
- III. 취업관의 변화
- IV. 사회의 관심과 비평
- V. 대학의 개혁
- VI. 결 론
- 참고 자료

I. 서 론

근래 중국의 각종 매스컴이나 인구에 회자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꼽는다면 단연 “개혁·개방”이 될 것이다. 80년대 이후 ‘개혁·개방’은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낸 전면적인 상징어이고, 대외적으로는 현대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말이다.

개혁·개방은 최근 20년간 중국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중국의 현황을 묘사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중국의 미래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개혁·개방은 각기 색다른 어의를 지니고 있다.

개혁은 경제, 정치, 교육, 과학기술 등 각 방면에 걸쳐 진행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공산당 주도 하에 사회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생산력 발전 및 경제 기초, 정치 법률 제도, 사회의식 형태 등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혁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의 자아발전 및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편, 개방은 중국의 세계화, 미래화, 현대화를 기본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중국의 자주 독립, 자력 갱생을 기초로 세계의 경제 문화 대열에 합류하고 선진 외국의 과학기술 및 관리 경험을 학습하면서 세계 발전과 공동 보조를 취하려는 데 있다. 중국은 근·현대사에 있어 일종의 쇠국정책과 자만심이 세계화 현대화의 장애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이 표방하는 개방은 대외적으로는 세계 민족 문화 대열에서 중화민족이 자립할 수 있는 일련의 자리매김 노력이요, 인류의 번영을 위한 세계인의 노력에 합류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개혁·개방의 기치를 내 건지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데 인색하고 있다. 물론 경제력 강화, 국민 의식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지표상의 평가는 향상된

* 역사학박사, 제주한라대학 관광중국어통역과 교수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세계적 수준 도달은 2010년이 되어야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총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¹⁾

80년대가 개혁·개방의 토대 마련을 위한 실험시기였다면, 90년대는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이론은 덩소평이 제시한 '중국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론'이었다. "시장경제가 결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란 있을 수 있다"는 덩소평의 이론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을 정립시켜 주었다.²⁾

총체적으로 볼 때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해 준 자극으로 중국 국민들 또한 그 당위성 및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젊은층을 포함한 국민 의식도 개방의 급류에 편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마치 지금의 시대 조류를 감지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시대적 낙오자로 낙인찍힐 정도로 그 속도는 외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³⁾

1993년~1996년 중국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와 산하 기관에서는 북경, 상해, 호북성, 광주, 홍콩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바 있으며, 통계 분석은 사회 반항을 불러일으켰다.⁴⁾ 좋건이지만 전체 설문 문항 내용은 개혁·개방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다양하긴 하지만, 응답 내용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란 느낌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대학생들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의식구조 변화를 가늠하는 좋은 1차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대학생들은 사상과 문화의 충돌 속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의식 형태를 표현하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중국에는 1,100여 개의 고등교육 기관(대학, 전문대학 포함)이 있으며 이들은 독립적 의식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고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 및 사회의 평가를 외국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자체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이 아니라서 깊이 있는 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양해를 바란다.

II. 중국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

의식구조란 일종의 가치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개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가치관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가치관이란 의식형태의 영역으로 개인의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사상이

1) 중국은 1996년에서 2010년까지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명의 세계적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解決》참고.

2) 《鄧小平文選》 제3권, p.373.

3) 이는 중국의 신조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줄자는 신조어를 통해 개혁·개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근 이를 초보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결과 수집한 용어들 가운데에는 경제, 문화 관련 용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징적으로는 언어 사용의 계층성과 시대성, 그리고 외래어와의 혼용이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처, 《觀光購物漢語語彙》(제주한라대학, 2001), PP.142~156.

4) 자세한 설문 문항은 楊德廣主編, 《中國當代大學生價值觀研究》(上海教育出版社, 1997年), pp.350~464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다. 좋고는 연도별/지역별 각 문항의 통계·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1996년 이후의 자료는 직접 명기한다.

나 문화 관념을 지칭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내지는 국가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관이란 인간의 가치 태도와 의향, 특히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문제 속에는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사상·도덕적 문제가 혼잡하게 내재되어 있다.⁵⁾

최근 중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통에 기초한 가치관과 서양 자본주의에 기초한 가치관,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개혁·개방의 조류는 오랫동안 중국인들이 사고를 형성지었던 봉건주의, 종법주의, 좌경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서구식 사회 의식과 가치관으로 봉건주의 유습을 판단, 비판하는 준거가 되고 있다.

1993년~1996년 북경, 상해, 호북성, 광주, 홍콩의 각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혁·개방 이후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에 대해 다방면의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⁶⁾ 개혁·개방에 민감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의 명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간, 학교간의 차별성과 시대적으로 이미 5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여 참신한 면은 떨어지지만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 본 중국 대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감지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설문 대상자들은 우리 나이로 평균 19~23세, 대부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출생한 자들로 중국 개혁·개방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1세대들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식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첫째, 대부분 학생들은 현재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에 대해 고민이 많다.

둘째, '1자녀 갖기 운동' 세대의 자녀들로 성장한 그들은 가정에서는 소황제나 공주로 자랐다. 따라서 이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부모나 사회로부터 일정한 괴리감을 띤다.

셋째, 자존심과 독립심, 그리고 개성은 부모 세대들에 비해 강한 편이지만 외계의 유혹, 특히 물질적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 진출을 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 홀로서기 연습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 신념 및 애국관

중국 대학생들의 이상은 다양하면서 현실적 경향이 짙다. 자신의 적성에 맞고 비전이 있는 곳이라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해 보고 싶다는 의향을 강하게 내 비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그들의 발전 방향은 자선 사업자나 음악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 세계와 인류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직업 등 다양하다. "왜 공부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 추구 욕망을 위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조국(중국)의 번영을 위해" 등으로 다양하게 대답했다.

중국 대학생들은 90% 이상이 중국과 중화 민족의 자손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중국인이라면 당연히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애국자"라고

5) 앞의 楊德廣主編, 《中國當代大學生價值觀研究》, 서론.

6) 설문 문항은 크게 개인출신 배경, 경제, 정치 등 3개 영역 45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소분류하면 개인 출신 환경 관련 9문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관련 96문항이다. 상세한 문항은 앞의 楊德廣主編, 《中國當代大學生價值觀研究》(上海教育出版社, 1997年), pp.350~464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했다. 또한 중국이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원 입대하여 조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곧 개혁·개방이 보수적인 중국의 전통 사회 분위기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중국 대학생들에게 투영되는 개혁·개방은 곧 발전하는 조국에 대한 강한 신뢰감과 애국심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시킨 덩소평과 《鄧小平文選》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95% 이상은 중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도덕관

광주지역의 학생들에게 “중국 전통도덕 사상은 항상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8.3%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응답했다.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32.6% 및 31.6%는 각각 ‘양심’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公·私간에 모순이 생겼을 때 본인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5%는 공을 위해 私를 버릴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30.4%는 먼저 공을 생각하고 난 후 私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62.3%는 공과 私를 모두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남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71.2%가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주저 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했다. 사실 조사에 응한 대학생 가운데 80% 이상은 주위의 친구나 동료를 위해 혹은 빈곤한 지역에 보내는 성금을 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70% 이상은 “희망공정(希望工程)”⁷⁾에 참가하고 있으며, 절반은 해당 지역의 공익 사업에 성금을 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직업 윤리에 있어서는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갈수록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대다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향후 반드시 자신들에게 좋은 직업 윤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나아가 “직업 윤리에 대한 책임은 회사 이미지 창출은 물론 생존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꼽는 등 중국 발전과 기업 윤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덕심 면에 있어서도 응답자들의 96%는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비문명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시내버스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45.7%는 남의 비문명적 행동을 보았을 때 일개워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장 경제의 여파 속에서도 중국 대학생들은 자신의 품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 “정직”과 “겸손”, “진취”와 “자존”을 대학생의 품격으로 꼽고 있다.

3) 생활관

중국 대학생들은 건강·지식·능력을 생활의 3대 요소로 들고 있다. 여가활용에 있어 응답자의 대다수는 쇼핑(73.5%)이나 TV시청(71.6%), 독서(67.7%)를 순위별로 꼽고 있다. 즉 중국 대학생들은 여

7) 중국에서 편벽한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일련의 교육 사업임.

가나 휴식을 대부분 문화 활동 및 자신의 지식 함양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예기다. 사실 중국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우리보다 많다. 1학기가 평균 20주이며, 중간 국경일, 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공강 없이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루 1~2시간은 독서와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독서는 주로 소설이나 잡지가 주류를 이루며, 독서의 목적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TV 시청의 경우 스포츠나 외국 영화 시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 대학생들은 음악도 즐기는 편이다. 대부분 현대 유행 음악을 좋아한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북경이나 상해 지역 일부 명문대학 학생의 경우는 고전 음악을,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락(rock)”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소비관

1996년 상해지역 학생들의 경제 배경을 보면 45%는 한달 학습과 생활비로 인민폐 300원 가량을, 그리고 31%는 300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이 풍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 성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에 따라 지출하는 다소 보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절약이 곧 미덕만은 아님을 역설하는 결과도 보인다. 사용하고 남은 돈의 처리에 대해서는 39%의 학생은 평소 자신이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고 대답했으며, 34%는 저축, 9%는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다고 했다. 참고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학생들의 주식 투자 열기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상 소비 성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72.3%의 학생은 “옷을 살 때 비싼 메이커보다는 비메이커라도 자신이 맘에 드는 것을 고른다”고 응답했으며, 26.2%는 “평소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면 보통 한 달 어치 수입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수입원은 주로 가정교사, 판촉 등 아르바이트를 들고 있는데, 54.6%의 학생은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4.6%는 “한번 영화나 연극을 보려면 최소한 100원(우리 돈 약 16,000원 정도)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90년대 말 상해 등 일부 지역의 계층을 제외한 중국인들에게 한번 영화나 연극을 보는데 인민폐(RMB) 100원을 쓴다는 것은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중국 대학생들의 소비 성향은 실용적이고 계획적이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임을 알 수 있다.

5) 목적관/진취관

설문 분석에 의하면 70% 이상은 “최근 중국 정부나 사회는 자신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6%는 “상해를 자신의 발전 기회를 마련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평가하는 등 현재 중국 정부의 노력 및 사회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가장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업을 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직접 회사를 차려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싶어서” 등 중국 대학생들은 사업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단, 81%의 상해지역 학생들은 ‘금전이 곧 만능이 아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이 재부를 위한 것만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광주 지역의 학

생들은 30.7%가 자신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 공헌할 수 있는 영역은 곧 경제임을 들고 있어 2순위인 교육·학술(20.0%)과 10.7%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인생 설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북경지역 학생들의 경우 58% 이상은 진로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1.3%는 아무런 목적없이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금융 계통, 대학원 진학, 삼자기업에 취직, 유학 순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공산당 간부로서 정치에 종사하겠다는 학생들은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뚜렷한 목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들의 목적관이나 진취관 속에는 현실적 욕구가 크게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대학생들의 고민

“지금 본인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상해지역 학생들은 학업 및 능력 배양(92%), 휴가분한 대학 생활(55%)을 1, 2위로 들고 있다. 대부분 재학 기간 중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남보다 먼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대학생활 중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3개 이상 선택토록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사회 경쟁이 치열함에 따른 진로의 불안정(57%), 동학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학업이 항상 긴장 상태(43%), 학교가 자신의 지식추구 욕망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음(41%)을 들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 “급료가 많고”, “승진 기회가 공평하면서 쉬운 곳”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 선택면에 있어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질 근무 환경, 자신의 능력 발휘 가능 여부, 풍족한 경제생활 제공,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과연 직업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7) 현대 기술 문화에 대한 관심도

첨단 산업화를 추구하는 21세기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이나 개인의 발전 역시 과학 기술 문화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중국 대학생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81.1% 장차 자신이 어떠한 직무에 종사하더라도 현대 과학 및 기술과는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성패 10대 조건 가운데 첫번째로 “신상품의 개발 및 시장 점유율”을 들고 있다. 그 외 “기술 인재 양성 및 고용”, “기술 인프라 구축 및 홍보”를 각각 5위와 9위로 드는 등 기술 문화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과학적 시대 추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취업관의 변화

문화대혁명이 끝난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학 출신 졸업자를 한 명이라도 배정받은 회사는 경사를 맞이한 듯 연일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대학생들은 학업과 경제적 부담, 졸업 후 진로 등 각종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중국 대학생들은 3·4학년이 되면 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진로를 미리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에서 안배하는 근무지는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거나 기피하는 곳이 많아 그들의 능력 발휘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는 아예 국가의 배양금(培養費)을 일시에 반납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다. 이는 상해나 북경 등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모험심 강한 학생들은 일찍부터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회 이목을 끌고 있다.

신화사통신 기자가 산둥성 일개 대학에서 실시한 취업 설문조사에 의하면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을 통한 입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국가 경제가 호전되고 WTO 가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회는 그들을 원할 것이며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문호는 쾌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의 설문 조사에서도 중국 대학생들은 점점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을 점차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지역과 명문대학일수록 뚜렷하다. 1998년 말 산둥공업대학 졸업생의 경우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 등 국영기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46.7%로, 계획경제시대 80%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반면 삼자기업(三資企業) 및 민영, 사영기업에 대한 취업률은 22.6%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

이처럼 최근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는 사회 보장과 임금 대우가 좋고, 자기 능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산둥경제대학 학생처 주임도 “과거에는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국유기업을 선호하였으나 지금은 높은 대우와 개인의 발전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중국 대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많은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제 시장에 대한 관념이나 창업 정신, 자립 의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산둥사범대학 학생처장의 말에 의하면 “한 번의 취업으로 일생을 확정짓는 관념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다”. “먼저 취업부터 하고 난 후 자신의 직업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창업하라”는 말이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관이다. 그러나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졸업생들의 기대는 높고, 근무 환경은 아직 열악하여 쌍방 모두 취업 기회를 잃는 경우도 허다한데, WTO에 가입 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3D” 업종에 대한 구인난은 갈수록 심각할 것이다.

중국 최대 상업도시인 상해 지역과 중국판 실리콘 벨리 ‘中關村’은 대학생들의 창업 열기가 왕성하기로 소문나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대학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상해교통대학 취업처에 따르면 취업으로 나가야 할 20여 명은 취업을 포기하고 5개의 신소재 하이테크 벤처기업을 창업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1999년 상해시 과학기술창업센터와 상해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지도센터에서는 상해시 과학기술위원회 및 상해시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상해시과학기술창업 자금을 설립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적극 알선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심사 과정은 전체 사업 내용과 성과, 장래성 여부 등 세밀히 진행된다. 더구나 학생들을 대신해 상공업등기, 회사 등록 등 각종 수속도 대행해 주고 있다. 상해교통대학 전자공학과 석사 羅水權은 졸업 당해 7개 외자기업에서 매달 인민폐 1만원(한화 약 160만원)을 보장해 주면서 스카우트를 제의했으나 그는 창업을 택했다. 현재 그는 동기생 王虎와 함께 ‘上海捷鵬計算機技術

有限公司'를 운영하고 있다..

현실이야 어떻든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학생들의 공통적 이상일 것이다. 중국 대학생들에게 이전까지는 꿈에 불과하였던 것이 지금은 국가가 그들에게 창업을 위한 각종 공간과 우대를 통해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소질과 창업 정신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잘 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학생들은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출판이나 전자책 출판 프로그램 사업 등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성공담은 적지 않다. 하지만 창업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대학 문을 나서기 이전에 수많은 전문 지식을 쌓고 실습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창업을 위한 기반을 중국 학생들은 재학 기간 철저히 다져 놓는다는 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학교 교육에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필자가 느낀 바이지만 중국은 기초과학의 토대가 든든하다. 문제는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다. 세계 우수의 기술 기업들이 중국을 사세 확장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하는 것도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과학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 대학원 등 전문 과정을 통해 심화 발전하고 있다.

중국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면 지도 교수의 책임 하에 “培養計劃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인력 양성 계획서에 따라 담당 학생이 좋은 성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教學相長”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다. 학생들의 창업 열기 등 지식 추구 욕구가 강할수록 그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創新”, 아마 중국의 대학 학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상해교통대학 謝繩武 총장은 대학생들의 창업 열기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대담하게 창업하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다. 이는 또한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재학기간 학생들에게 각종 과학 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 사회로 나아가 이를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주적 창업 능력을 지니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 패턴 변화는 다른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도시민들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소위 아파트 관리직이 대단히 많다. 그 외 공공성 취업처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들은 이를 외면해 왔다. 지금까지 상해나 광주, 북경 등 대 도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일자리에선 학력이 낮거나 퇴직한 연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대우도 낮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주택 환경, 재정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대졸 취업자들이 대거 물리고 있다. 2000년 3월 상해의 한 아파트 관리 직종 7명 공채에 무려 100명의 대졸 출신자가 지원하여 마스크들이 앞 다투어 보도한 바 있다.

상해나 중국 등 도시민들의 거주 지역을 ‘街道’라 한다. 일개 街道의 관할 인구는 평균 10만 명, 그 밑에 ‘居民委員會’(居委會라 간칭)를 두어 약 5,000명의 주민을 관할한다. 그리고 일개 街道에는 20여 개의 居委會가 있다. 居委會에는 6~7명의 관리자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연로하거나 학력이 낮은 중년 부녀자들이다. 때문에 과거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과소 평가하거나 냉대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부에 관리직 인원의 수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생들에게 지역 내 관리직 일자리를 주선하였고, 여러 매체에서도 지역 관리직은 영광스런 직업임을 강조했다. 중국 사회 변화가 대학생들의 취업 패턴 변화를 가져다 준 일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장차 사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관리직 과목을 정식 과정으로 개설하기도 했다.

IV. 사회의 관심과 비평

중국 대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처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회의 그들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사항은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첫째, 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절강성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

(1) 전문성 결여

전문 지식이 박약하다. 이는 지방 대학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학생의 경우 기본 연구 내용 및 학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 부족, 자발적 자료 수집이나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려는 능력이 모자라다. 절강대학교 모 단과대학 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의 학생들이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9%는 자신의 전공에 있어 교재에 국한되어 공부한다고 응답했다.

(2) 편협된 지식

너무 일찍, 고등학교 때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대학생의 지식 구조가 편협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과 계통의 학생들은 인문 지식을, 문과생은 이공 관련 지식과 담을 쌓는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영어나 컴퓨터 정도인데, 그나마 자격 시험만 통과하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의 지식 영역이 갈수록 좁아져 '콩나물형' 인재들이 양산된다.

(3) 인문 정신의 결여

수많은 학생들이 인문 정신 소양이 모자라 타인과의 대화나 토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등 사회나 자연에 대해 관심이 갈수록 결핍되고 있다.

(4) 실무 능력 결여

교과서식 지식에만 익숙하다 보니 사회실무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를 통해 또 다른 것을 창출해 내는 융통성과 활용 능력의 부족은 중국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다방면에 걸친 인재 양성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대학생의 불안한 심리 상태이다. 중국의 심리학자들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장 경제, 복잡하게 얽히는 인간 관계가 대학생의 심리 부담을 가중시켜 균형을 잃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 사회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라나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장애를 주고 있다고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중국 대학생들 가운데 20%는 심리적 문제가 있으며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라고 한다. 중국 심리학회에서 실시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율은 전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초과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내의 여러 사건들도 이로 인한 것들이다. 남경시에서 2,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1%의 학생이 의지력이 부족하고, 67%는 실패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응답했다. 어린 마음으로 어떻게 험난한 자기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 사회에서는 걱정하고 있다.

셋째, 체력 약화이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중국이나 대만의 대학에서는 '智·體'를 강조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지식 추구만이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인 양 체육 활동을 등한시하고 있다.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감기에 잘 걸리고, 운동하다 쓰러져 학교 응급실로 보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중국의 대학에서는 매년 체력 측정의 일환으로 교내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기록은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 대학생들의 체력 관리 상태를 두고 북경사범대학 부총장은 "대학생 가운데 축구를 구경하는 사람은 많아도 공을 찰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화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건강 미인은 적다. 영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신체 단련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1999년 상해, 성도, 중경 등 6군데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발전 선호도 가운데 체력은 10번째에 불과하여 거의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같은 해 호북성 지역의 이공대학, 문과대학, 의과대학, 재경대학, 사범대학 등 5군데 대학생 554명(남 298명 여 256명)을 대상으로 힘, 속도, 인내력, 순발력, 유연성을 측정하여 '(중국)대학생 체력합격 표준'과 대조해 본 결과 25%의 학생이 표준 미달이었다.

그밖에 최근 대학생들은 식량 낭비와 혼전 성행위에 대해서도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다. 《中國青年報》(2000. 4. 6.)의 보도에 따르면 2,000명 남짓되는 일개 대학에서 매일 쓰레기통으로 내 버려지는 반찬이 150kg에 이르며,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만두로 포탄을 만들어 내던지는 놀이까지 한다고 보도했다. 학교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 먹는 일에 쓰여지는 용돈도 만만찮을 것이다. 어떤 학생은 매달 수 천원을 쓴다고 한다.

한편, 사회학자 李愛蘭교수는 북경시 5군데 대학생 1,310명을 대상으로 성관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처음 성관계를 경험하는 나이는 남자의 경우 평균 18.7세, 여자는 19세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중국 대학생들의 혼전 성관계는 문란하고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이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남 연해지역의 대학생들은 북방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 느슨하다고 한다.

V. 대학의 개혁

"중국의 대학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크나큰 변화이다. 그 변화는 학생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211工程"⁸⁾의 토대로 삼는 듯하다.

8) '21세기 세계 일류대학 부상을 지향하는 중국 대학 교육의 발전 운동'으로 최근 합병이 유행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개혁·개방은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으나, 사회 빈부 격차를 통한 위화감 조성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대학생의 약 2%는 극빈 가정 출신이다.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는 한 그들 스스로 학업을 마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서부 등 일부 낙후된 지역에서 대도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 학업 부담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1999년 대학생 학비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이 업무를 책임지는 중국공상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말 현재 북경, 상해, 무한, 광주 등 8개 시범도시의 각 지점은 54개 대학과 협의 서명하였고, 만 명이 가까운 학생이 대출 신청했다고 한다. 대출 금액은 인민폐 4억원에 달한다.

중국 교육부에서도 사회 각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자 신용과 담보를 강조하던 은행들도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나섰다. 물론 개인 신용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신용 대출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적극 찬성론자들은 “대학생들이 신용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한다. 학부모들도 “학비를 대출한 학생들이 제때에 대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라 개인 신용을 얻으면 이 역시 신용 사회의 동량을 양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은행측에서 절충안을 내 놓았다. 대출은 ‘소개인’과 ‘보증인’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한 것이다. 소개인은 학교에서 학비 대출을 책임지는 부서, 보증인은 대금을 빌린 사람과의 인적 관계가 형성된 절친한 자연인을 각각 지칭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책임지고 돈을 빌린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만일 돈을 빌린 학생이 계약을 어기고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개인과 보증인은 경제적 상환 책임은 없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인과 소개인, 보증인의 성명을 마스크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신용 사회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강의 시간표 배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시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자유롭게 강의 시간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낮 12시는 중국에서 당연히 점심 시간이지만, 상해대학의 경우 15개 학과 학생은 그 때야 교실로 들어와 수업 준비를 한다. 상해대학에서는 하루 강의 일정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35분까지 언제든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분의 중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고정된 점심이나 저녁 시간, 휴식 시간이 따로 없다.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수업을 형편에 맞게 전 시간대에 배정하는 것은 외국 대학에서는 일반적인 형태로, 그것은 학교 이미지 창출은 물론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이익”이라고 한다.

중국 대부분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한다. 때문에 아침 저녁 등 식당도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이용하게 된다. 특히 저녁 시간은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려 식사가 불편할 정도였으나 전일 수업 일정으로 배정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또한 1일 교내에서의 가용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은 교수나 학생들에게 모두 이익이다. 교수는 제한 과목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고, 학생들은 많은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어 좋은 것이다. 상해대학 교수들의 경우는 강좌 개설에 제한받지 않고 몇 개 강좌를 더 개설할 수 있어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 학교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조항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일반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응답자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⁹⁾, 94년, 95년, 96년 해

가 갈수록,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일수록 개혁을 부르짖는 성향이 강하다. 최근 교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3개 이상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 상해지역 학생들의 경우 '마르크스주의 기본 이론교육'(49.94%)과 '심리건강 교육'(40.67%), '사회公德 및 직업 도덕교육'(27.98%)을 각 1,2,3위로 꼽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설비 및 내용의 진부함(53.36%), 교수 방법의 획일화 및 단조로움(50.92%), 전공과의 불일치(50.87%)를 들고 있다. 나아가 응답자의 69.07%의 학생들은 수강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VI. 결 론

졸자는 중국 대학생들의 가치관 및 의식 구조에 따른 설문 문항의 분석을 통해 중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의식 구조는 두 방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 즉, 중국 전통문화 및 가치관의 영향과 서양 자본주의 가치관의 영향이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에게 개혁·개방의 물결은 보수적 가치관 및 의식 구조에 대한 일대 충격으로 이를 통해 봉건적 관념, 보수적 사회 비판의 이론으로 삼고 있다.¹⁰⁾

설문 대상자들은 우리 나이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19~23세, 대부분 70년대 말 또는 80년대 초에 출생한 자들로 중국 개혁·개방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1세대들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식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첫째, 현대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시장경제 논리의 기초인 개혁·개방을 중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역사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개혁·개방과 대학생들의 개방적 가치관은 비례하고 있다. 물론 개혁·개방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역적, 학교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 문화의 자극이 많은 지역이나 학교는 전 중국 개혁·개방의 전본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 대학생들은 '행동은 자유, 사상은 보수'적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자유 분방'이란 단어는 아직 그들에게는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중국 대학생들의 '행동의 자유'란 중국적 전통 가치관 속에서 표현하는 행동의 시대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사고의 유연성 및 '중국적 사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거국적 중국 내 개혁·개방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의 전환은 적극적이며 사회 발전 조류에 부합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의식 성향에 대해 우려는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직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 독단적인 의식 성향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현실에 대한 관심이며, 자신들도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사고를 진취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개혁·개방 1세대들인 중국 대학생들의 의식 동향은 현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현실적 표현으로 중국 사회 발전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역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9) 학교 교육 및 행정, 관리 등 교내 교육 환경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요령은 매우 만족(很滿意), 대체로 만족(比較滿意), 일반적(一般), 비교적 불만(不太滿意), 매우 불만(很不滿意) 5개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10) 앞의 德廣主編, 《中國當代大學生價值觀研究》, 〈對大學生影響較大的幾種價值觀〉, PP.7~14.

참고 자료

1. 한국경제특별취재팀, 《상하이리포트》, 은행나무, 2001.
2. 翁杰明等主編, 《1996-1997年中國發展狀況與趨勢》, 北京社會出版社, 1997년
3. 朱光磊主編, 《當代中國社會各層分析》, 天津民族出版社, 1994年
4. 陸建華主編, 《中國青年發展報告》,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5. 陸建華, 《來自青年的報告-當代中國青年價值觀及其趣向的演變》, 遼寧人民出版社, 1992年
6. 楊雄主編, 《中國大學生部落-校園熱點追蹤》, 河南人民出版社, 1994年
7. 楊德光, 晏開利主編, 《中國當代大學生價值觀研究》,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8. 賀國偉, 《酷語 - 流行風》, 天津科學出版社, 1999年
9. 賀國偉, 《前衛詞話》, 南京大學出版社, 2001年
10. 졸저, 《관광쇼핑중국어어휘 - 觀光購物漢語》, 제주한라대학, 2001年
11. 〈大學生文化趨勢〉(<http://www.sina.com.cn>)
12. 〈中國青年報〉(<http://www.cyd.com.cn>)